

2일차:::쾰른(COLOGNE)



쾰른대성당

쾰른 대성당은 독일 쾰른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당이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 쾰른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라 쾰른 주교좌 성당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쾰른 대교구의 교구장은 공석이다. 이 성당은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축물이며,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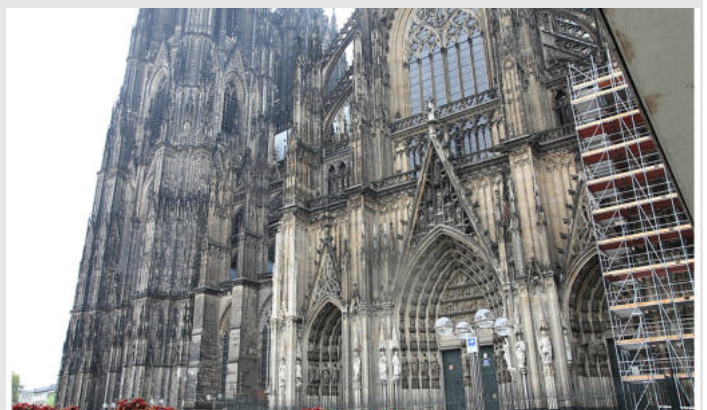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에 이어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옛 프로이센에서는 베를린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다. 기원전 38년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졌으며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이다. [위키백과](#)

GIJOSTYL.COM

2일차:::쾰른(COLOGNE)



뒤셀도르프에서 쾰른까지는 열차로 약 30분 뒤셀에 숙소를 두고 쾰른은 잠시 여행코스로 정하였다. 쾰른 역에 도착하니 11:30분 역에서 바로 보이는 쾰른돔. 대성당 규모에 놀라 카메라를 들이댄다. 한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다.





로마-게르만 박물관

디오니소스의 모자이크가 유명

쾰른돔 내부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아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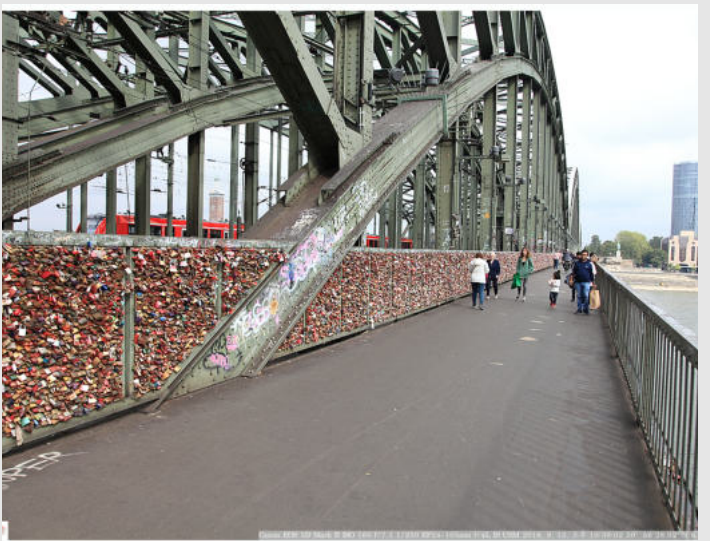
쾰른은 로마시대 도시로서 로마세력이 이곳까지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1941년 반공호 건설중 발견되었으며 로마시대 건축물과 유리공예 및 다양한 유적들을 관람할 수 있다. 웬만한 사이즈의 가방은 모두 맡겨두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내부 전시물을 보면 그정도의 불편은 감수할만 함.

2일차:::쾰른(COLOGNE)

쾰른 관광지는 대부분 한 곳에 모여있어 박물관을 관람하고 바로 나오면 강쪽으로 호헨졸렌 다리가 있다. 초기에는 열차와 자동차용 도로였다는데, 지금은 자동차는 다니지 않고 사람만 통행가능하다.



Hohenzollern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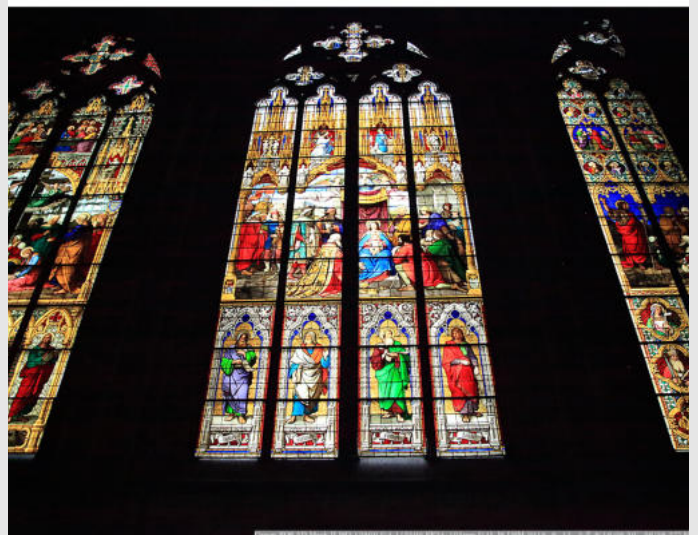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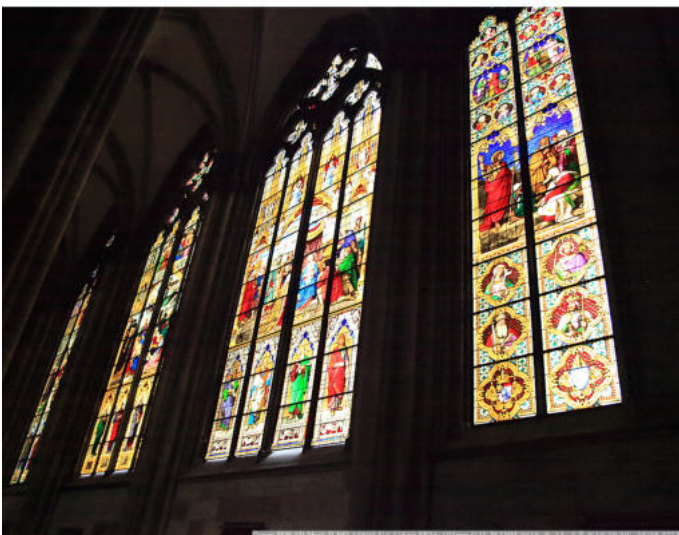
2일차:::쾰른(COLOGNE)

숙소에서 늦게 나서긴 했지만 때가 되니 배가 고프다. 좀 쉬었다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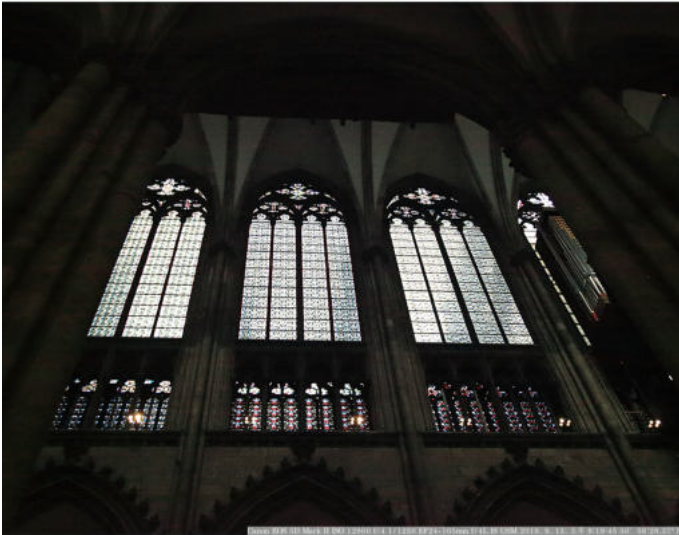
2일차:::쾰른(COLOGNE)

쾰른대성당 내부



2일차:::쾰른(COLOG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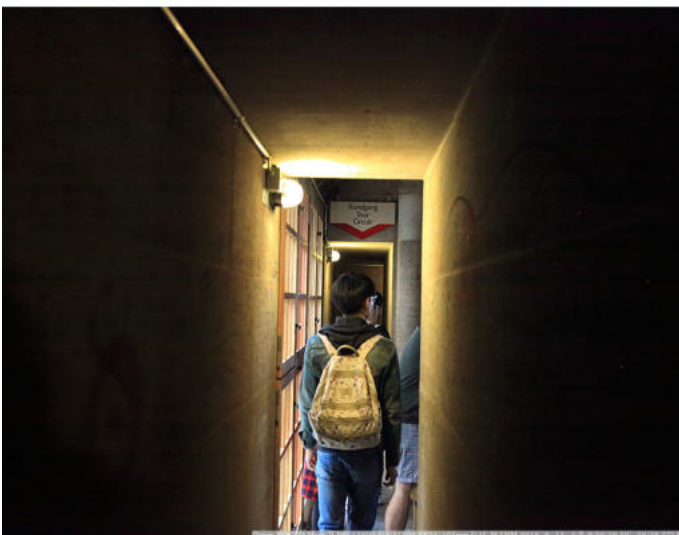
쾰른대성당 내부



2일차:::쾰른(COLOG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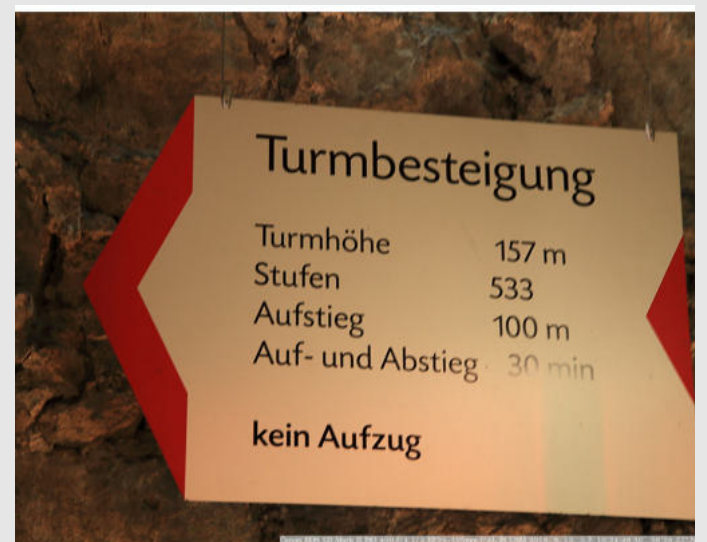
쾰른돔 타워

듀오모 돔에 올라가지 못한 한을 여기서 풀어볼까나? 높은 돔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 보는 것이 많은 매력이 있다. 533계단, 올라가는 높이는 100m, 종탑 높이는 157m 약30분간 등정하여 정상에 도착, 체력바닥! 그러나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하나는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값비싼 선물



2일차:::쾰른(COLOGNE)

쾰른돔 타워



2일차:::쾰른(COLOGNE)

중탑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체력저하 현상으로 급하게 맥주를 부르는구나!

카톨릭 성당 & Fish Market



2일차:::쾰른(COLOGNE)

시청사 그리고 쾰른 역

피쉬마켓 주변에 파스텔 색예쁜 건물들이 너무나 정감있게 다가옵니다. 시청 광장에는 결혼식 촬영하는 모습도 보이고 몸을 지쳐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젠 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뒤셀도르프로 컴백함.



소요비용 요약 쾰른돔 타워 : 4인 16유로 로마-게르만박물관 4인 26유로 맛있는 점심과 맥주 4인 66유로